

# “병들고 소외된 이들 위해... 행복으로 가는 길 인도”

### 성 요한 수도회 최초 한국인 사제 정요안·원유창 신부 인터뷰

“아픈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우리의 일이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환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목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정요안 신부)

“초심으로 돌아가 수도회가 지향하는 현대(Hospitality·의료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원유창 베네딕도 신부)

올해로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이하 수도회)가 배출한 첫 한국인 사제들의 각오다.

이들 신부들은 지난날 광주대교구 임동주교좌성당에서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주례로 서품식을 갖고 사제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은 평수사 신분으로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미사 집전을 비롯해 성사 집행 등 사목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

이들이 사제가 되기까지는 7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수도회의 방침에 따라 이들은 오랫동안 평수사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 실정을 잘 이해하는 한국인 사제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母)관구인 아일랜드 성 라파엘 센터에서 3년 동안 임상 사목을 이수하는 등 사제 준비과정을 거쳐 수도회의 첫 한국인 사제가 될 수 있었다.

원 신부는 “23년 동안 평수사로도 활동하면서도 늘 만족했는데 이렇게 사제 서품까지 받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춘천시립복지원에서 수도회의 사제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서울가톨릭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 신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한국관구장을 역임했다. 그가 수도회에 입회한 것은 지난 1982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치는 수도회의 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광주출신인 정 신부는 광주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당에서 청년활동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활동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1991년 수도회에 입회해 지금까지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후원회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정 신부는 서울 늘푸른나무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봉사 및 사목활동을 앞두고 있다.

정 신부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이 또 다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면서 “호스피스 등 존엄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의 마지막 여정을 보듬는 사목활동을 펼치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의 첫 한국인 사제인 정요안(왼쪽)·원유창 신부.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는 천주의 성 요한(1495~1550)이 1539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가난한 환우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1572년 교황 비오 5세의 인준을 받았으며, 현재 52개국에서 수도자 1400여 명이 300여 개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에서 의료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 관구는 1958년 당시 광주대교구장 현하롤드 대주교의 요청으로 아일랜드관구에서 선교사 5명이 파견되면서 출발했다. 이들은 1960년 ‘천주의 성 요한 의원’을 개원, 본격적인 의료 및 구제 사업을 펼쳤으며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본원이 세 곳(서울, 춘천, 담양)으로 늘어났다.

고 있다.

한국의 수도회들은 천주교의 요청으로 아일랜드관구에서 선교사 5명이 파견되면서 출발했다. 이들은 1960년 ‘천주의 성 요한 의원’을 개원, 본격적인 의료 및 구제 사업을 펼쳤으며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본원이 세 곳(서울, 춘천, 담양)으로 늘어났다.

## 교회 장로 30% 여성으로 채운다

### NCCK ‘한국교회 양성 평등’ 개혁안 통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앞으로 교회 장로와 교단 총회 대의원의 30%는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부목사가 2명 이상이면 1명은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가입 교단이 시행하도록 했다.

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1년여간 걸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교회 양성평등 정책문서’를 마련해 최근 열린 57차 총회에 상정,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정책문서는 교회 안팎에 남녀

간 역할을 따로 정해져 있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면 교회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단 총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과 교단 총회 대의원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장로를 뽑을 때 여성 비율도 30%를 넘기도록 했다. 특히 부목사가 2명 이상일 때 1명은 반드시 여성 부목사로 청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단 내 양성평등위

원회를 설치하고 ‘양성 평등 주일’을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단별 로법 조항을 고쳐 ▲부부 목사 인정금 동등 지급 등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더욱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양성평등 교육예산을 50%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 수여 시 가운데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성차별적 예산은 철폐하도록 했다.

여성 부목사와 여성 장로는 NCCK에 가입한 7개 교단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그 수는 교회별로 한두 명에 그쳐 상징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 목포연동교회 창립 80주년 찬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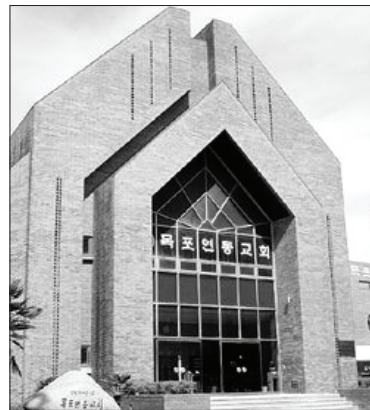
### 13일 목포 시민회관

창립 80주년을 맞는 목포연동교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목포시민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연동 80 찬양제’를 갖는다.

이날 찬양제는 연동교회 김명봉 목사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등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사도신경’ ‘복 있는 사람 목상하는 자로다’ ‘이 믿음은 더욱 굳세게’ 등의 찬송가를 들려준다.

또 연동교회 영상제작팀이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브니엘 찬양운동선교팀’이 찬양운동을 선보인다.

한편 지난 1928년 목포시 상동에서 선교를 시작한 연동교회는 초대 이남



목포연동교회 창립 80주년 찬양제.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종교칼럼



최광선

히말라야의 설산에 집 없는 새가 살고 있었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즐겁게 놀지만, 밤만 되면 추위에 떨면서 결심을 한다.

“아이, 추워,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어 따뜻하게 잠을 자야지.” 그러나 날이 밝으면 간밤의 고생과 다짐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노래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영원히 집이 없는 새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히말라야의 집 없는 새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속절없이 한 생을 마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햇볕이 하루를 보냈지만 내일부터는 잘하면 될 것이다.” 미루는 그 마음은 끝이 없는 것이다.

도가 높은 스님에게 불교 신도인 속가의 친구가 있었다. 스님은 어느 날 친구인 장조류를 찾아가서 간곡히 권하였다. “여보게, 자네도 이제 죽을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발심하여 영불도 하고 참선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야. 단 내가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서 그 일만 마치고 곧 할 생각이네.”

## 마음 닦는 공부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들 딸 모두 좋은 혼인을 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그렇게 하겠네.” 그런데 장조류는 그 세 가지를 다 이루기도 전에 열반해버렸고, 스님은 문상을 가서 조문을 지었다.

“나의 친구 장조류여! 영불 권하자 세 가지 일을 마친 후에 한다고 했지. 영라대왕 그 양반도 분수가 어지간한 없네. 세 가지 일을 마치고도 전에 끌고 가다니...” 스님의 조문은 영라대왕을 나무라는 듯이 지었지만, 영라대왕은 곧 나의 업(業)이므로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애착에 매달려 마음 닦는 공부를 내일로 미루다가 덧없는 돈 목숨을 마치고 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바다 속 돌멩이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번 호흡을 하기 위해 망망대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그 찰라 구멍 뚫린 널 판자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다.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행하기 어려운데 이미 틀나니 이내 몸을 이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원불교 성가 98장 발문(發盆)의 노래이다. 마음 닦는 공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공부하고 실천하게 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지극한 정성으로 적공을 오래 오래 계속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불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무)

## 이주민 자녀 ‘겨울 명상학교’ 개설

광주 원각사 27~29일

조계총림 송광사 광주포교당인 원각사(광주시 동구 금남로)는 오는 27~29일까지 이주민 자녀와 함께 하는 ‘원각사 어린이 겨울 명상학교’를 갖는다.

이번 명상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마당, 어린이 명상학교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예불, 명상, 발우공양, 공동체 놀이, 요가, 공군부대 조정 시뮬레이션 체험학습 등의 부대행사로 곁들인다. 참가비는 5만원. 문의 062-223-316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p><b>메가박스</b> 구.원당역사거리 ☎1544-0600</p> <p>1관 <b>과속 스캔들</b> (12세) 최고급관 2관 <b>순정만화</b> (12세) 3관 <b>미인도</b> (18세) 4관 <b>쏘우 V</b> (18세) 5관 <b>기방난동사건</b> (15세) 6관 <b>맥스페인</b> (15세) 7관 <b>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b> (15세) 8관 <b>마지막자비/로슈포르의숙녀/물본오징어</b> 9관 <b>눈먼자들의 도시</b> (18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다.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p>	<p><b>엔터 시네마</b>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b>미인도</b> (18세) 2관 <b>아내가 결혼했다</b> (18세) 3관 <b>소년은 울지않는다</b> (15세) 4관 <b>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b> (15세) 5관 <b>바디 오브 라이즈</b> (12세) 6관 <b>맘마미아</b> (12세) 7관 <b>007퀀텀 오브 솔러스</b>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b>ARCS</b> 실시간</p>	<p><b>콜롬버스 시네마</b>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역편의점)</p> <p>1관 <b>순정만화</b> (12세) 2관 <b>쏘우 V</b> (18세) 3관 <b>미인도</b> (18세) 4관 <b>미인도</b> (18세) 5관 <b>앤티크(15세)/눈먼자들의 도시(18세)</b> 6관 <b>007퀀텀 오브 솔러스</b> (15세) 7관 <b>과속 스캔들</b> (12세) 8관 <b>맥스페인(15세)/07퀀텀 오브 솔러스(15세)</b> 9관 <b>기방난동사건</b> (15세) 10관 <b>과속 스캔들</b> (12세)</p> <p>• <b>ARCS</b> 최대 주차장 • 매일실시간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해남점 (10개관) <b>잡편리 상영중</b> 1588-7941 상무점: 1588-7941 해남점: 1588-7941</p>	<p><b>씨너스 전대</b>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b>순정만화</b> (12세) 2관 <b>미인도</b> (18세) 3관 <b>기방난동사건</b> (15세) 4관 <b>앤티크(15세)/007퀀텀 오브 솔러스(15세)</b> 5관 <b>눈먼자들의 도시</b> (18세) 6관 <b>과속 스캔들(12세)/기방난동사건(15세)</b> 7관 <b>과속 스캔들</b> (12세)</p> <p>• 매일실시간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 사수니(오전9시~오후11시) ARS 전화예약 1544-0070</p>	<p><b>하미 시네마</b> 진대후문 <b>하미포렉스</b> ☎ 267-7777</p> <p>1관 <b>맘마미아</b> (12세) 2관 <b>맥스페인</b> (15세) 3관 <b>앤티크</b> (15세) 4관 <b>뱅크잡</b> (15세) 5관 <b>007퀀텀 오브 솔러스</b> (15세) 6관 <b>눈먼자들의 도시</b> (18세) 7관 <b>순정만화</b> (12세) 8관 <b>과속 스캔들</b> (12세) 9관 <b>미인도</b> (18세) 10관 <b>기방난동사건</b> (15세)</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시간 • 이동통신사 &amp;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령점 288-5757 • 하미 북령점 262-0825 • 하미 골프점 251-5060 • 하미 남구점</p>	<p><b>제일 시네마</b> 충정로 37가 ARS 전화예약 227-1800</p> <p>1관 <b>과속 스캔들</b> (12세) 2관 <b>기방난동사건</b> (15세) 3관 <b>순정만화</b> (12세) 4관 <b>미인도</b> (18세) 5관 <b>앤티크(15세)/007퀀텀 오브 솔러스(15세)</b> 6관 <b>쏘우 V</b> (18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앞 호남대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227-1800</p>
--	---	---	--	--	---